

절망한 자들의 세계관, 유명 에티카

라깅, 바디우, 에곤 쉴레의 윤리학

1장 환상의 횡단 _라캉의 유형

쓴다는 것은 선행적인 몰개성[...]을 통하여
자아가 아닌 오직 언어만이 작업하고 수행하는
바로 그 지점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_롤랑 바르트, 『저자의 죽음』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였던 1887년, 포츠머스 시의 변두리 사우드에서 개업한 어느 의사가 『주홍색 연 구』라는 제목의 중편소설을 발표한다. 의사가 소설을, 그것도 통속적인 추리소설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간단했다. 환자가 없어 시간이 남아돌았고, 그리고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몇 년 뒤, 소설의 후속편들이



잡지 『스탠드Stand』의 삽화가 시 드니 패짓Sydney Paget이 그린 셜록 홈즈

점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의사는 글 쓰는 일이 수술보다 더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의사는 전업 작가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추리문학의 대가 아서 코난 도일이다. 그가 창조한 소설 속 주인공 셜록 홈즈는 빅토리아 시대의 실증적 과학주의의 매력과 모순을 동시에 소유한 인물로 이후 추리문학 장르의 전설적 캐릭터가 된다. 논리를 추구하며, 검증 가능한 ‘진실’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홈즈라는 인물은 철학이나 전통 문학, 신학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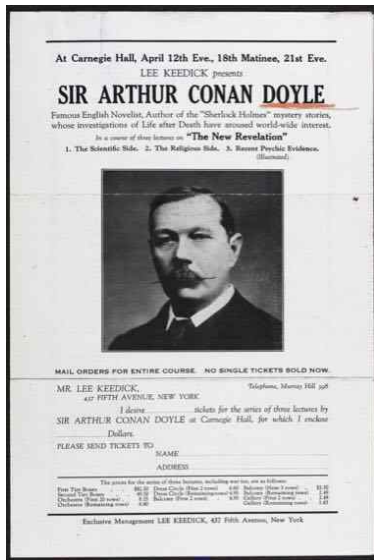
반면 홈즈는 열대식물학이나 화학, 지질학, 독극물학, 형법, 그리고 통속 범죄 문학에 조예가 깊고 권투와 펜싱 등의 스포츠에 능한 인물로 그려진다. 형이상학에 대한 경멸과 경험적 실증성에 대한 신뢰를 표상하는 빅토리아 시대의 아이콘으로 그려지는 홈즈는 실용주의 정신을 대표한다. 영국의 경험론적 회의주의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이 탐정으로 둔갑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듯한 느낌마저 주는 홈즈의 이미지는, 그러나 그리 간단한 환원 속으로 수렴되지 않는 이면을 가진다. 그것은 바로 명탐정 홈즈가 다름 아닌 코카인 중독자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LSD, 아편, 알코올 등과는 달리 코카인은 의식을 더욱 선명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적 망상을 강화하며 사회성을 제한하는 마약의 일반적 환각 효과와는 달리 코카인은 오히려 타자와의 관계를 적극적인 것으로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에서 알코올과 아편이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마약이라면 코카인은 빅토리아 시대의 이성-자본 중심의 시대를 대표하는 마약이다. 만일 아편을 반-공동체적 마약이라고 부

를 수 있다면, 코카인은 공동체의 마약이다. 그것은 의식의 확장이 보편성의 고정점들을 초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신을 자극한다. 그러나 마약은 그럼에도 마약일 뿐이다. 코카인이 가진 이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의 정신을 좌초시킨다. 선명성이라는 명료함 속에서 정신은 오히려 그러한 투명함의 희생자로서 파편화된다. 너무 투명해진 세계의 외곽선들은 그 날카로움으로 희생자의 시선을 난도질하기 때문이다.

코난 도일은 소설의 주인공 셜록 홈즈를 뛰어난 판단력과 지성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마약으로 파괴하는 우울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흔히 말하듯, 소설의 주인공이 작가의 분신이라면, 우리는 홈즈와 작가 코난 도일의 관계를 동일시의 관점에서 파악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첫 소설을 발표한 1887년 당시 코난 도일은 젊은 안과 의사였다. 그러나 1887년이라는 시점은 코난 도일에게 홈즈 시리즈의 출발이라는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의미를 갖는데, 그가 이 시점부터 심령술 연구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스물여덟 살이었던 안과 의사 코난 도일은 인간 정신의 텔레파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다. 이 같은 연구는 죽은 자들의 세계와 산 자들의 세계를 연결하는 영매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난 도일은 1916년 영국의 심령 잡지 『라이트Light』에 당시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1916년은 1차 세계대전 중이었으며 당시 코난 도일은 종군 기자로 최전방의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삶과 죽음이 혼각을 다투는 전쟁터에서 그가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산 자들의 소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 죽은 자들, 영혼들의 세계의 소식이었다.

1887년은 그와 같은 모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였다. 이성과 합리성의 화신인 셜록 홈즈라는 인물이 탄생한 시기인 동시에, 정작 그를 창조한 작가 자신은 합리주의를 경멸하듯 신비주의에 몰입하게 되는 모순의 시기. 셜록 홈즈와 코난 도일을 거울 관계의 위상학 속에서 파악해본다면, 홈즈의 코카인 중독은 코난 도일의 심령과학에의 몰입과 중첩된다. 홈즈에게 코카인이 이성의 선명함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그러한 선명함이 오히려 파괴의 지점으로 주인공을 몰아가는 모순을 보여주었다면, 코난 도일에게 역시 심령과학은 과학의 논증을 통해 논증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서려는 모순적 탐사의 실천에 다름 아니지 않은가? 심령과학이란 과학 자체의 이름으로 과학을 부정하는 실천이다. 그것은 과학의 선명함이 넘어서지 말아야 하는 영역으로 진입하는 순간 등장하는 온갖 우스꽝스런 소동의 시작점이다. 그것은 과학 자체의



코난 도일의 심령학회 연설을 광고하는 포스터. 코난 도일은 '파리 국제 심령술 연맹'의 명예 회장이기도 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과학의 망상증일 뿐이다(심령과학은 종교가 아닌 과학임에 주목하라!).

그런 의미에서 작가 코난 도일과 그의 창조물 셜록 홈즈는 교묘한 방식으로 서로를 닮았다고 할 수 있으며, 둘은 작가와 창조물이라는 혼한 거울관계의 도식 속에서 쉽사리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태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특히 홈즈라는 인물의 탄생 배경과, 이후 코난 도일이 그를 다루는 방식을 고려한다면 둘의 관계를 단순한 닮은꼴의 관계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코난 도일 ◇ 홈즈, 왓슨

잘 알려진 것처럼 코난 도일은 홈즈 시리즈로 상당한 명성을 얻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주인공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가 통속 추리소설보다는 역사소설이나 정통 문학 작가로 기억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이유를 추론해보자면, 이미 심령술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던 코난 도일의 세계관과 홈즈의 선명한 합리적 세계와의 대립이 있다. 결국 홈즈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계획된 『최후의 사건』에서 홈즈를 폭포에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마무리한 코난 도일은 그날 일기에 “홈즈를 죽였다”라고 담담히 적는다. 영국과 유럽에만 수십만의 독자를 확보하며 코난 도일을 일약 통속 추리문학의 스타로 만들기 위해 악당들과 싸우며 고군분투했던 셜록 홈즈는 그렇게 자신을 태어나게 했던 아버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러나 이어지는 사태는 작가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우선 독자들과의 반응이 생각보다 감상적이었다. 셜록 홈즈를 살려내라는 요구가 격렬했던 것이다. 게다가 코난 도일의 이후 작품들은 셜록 홈즈 없이는 제대로 된 글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한다. 그리하여 ‘홈즈 살해’ 이후 여러 조건들은 홈즈를 다시 살려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코난 도일의 반응이다. 그는 홈즈를 직접 살려내는 대신, 홈즈의 사망 이전의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만 소설을 다시 발표했기 때문이다. 홈즈를 호락호락 살려내기가 내키지 않았다는 듯, 이후로도 9년의 시간을 끌다가 겨우 ‘홈즈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그를 살려낸다. 이처럼 둘 사이에 흐르는 알 듯 모를 듯한 긴장감이 우

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인상은 흠즈가 둘의 관계를 지배한다는 느낌이다. 소설 속 인물일 뿐이었지만, 그는 유령처럼 코난 도일의 삶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흠즈는 코난 도일보다 더 유명했고,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백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정은 변하지 않았다. 설록 흠즈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의 문화적 영향력은 지대하지만, 그를 탄생시킨 코난 도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물론, 한 시대를 풍미한 작가와 그가 만든 대표작의 주인공이 맺는 관계가 대체로 그러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마담 보바리를 아는 사람은 많아도 플로베르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를 지배하는 흠즈의 특수한 지배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보다 개별적인 둘만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난 도일이 설록 흠즈의 모델로 삼았던 인물은 그의 의대 시절 교수였다고 한다. 영국 에든버러 의과 대학 교수였던 조지프 벨 박사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알려진 명의였다. 코난 도일은 이 교수의 생김새와 성격, 재능, 심지어 괴팍한 버릇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존경했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자신의 작품 속 주인공으로 재탄생시키기에 이른다. 학창 시절 자신을 그토록 사로잡았던 인물을 자신의 소설 속에서 다시 만나고 문학의 틀 속에서 소유하려고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가정했던 코난 도일과 설록 흠즈의 동일시는 단순히 자신과 유사한 인물을 소설 속에서 창조해내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정신분석이 말하는 소위 '전이(transfert)'라는 개념이다. 풀어 설명하자면, 코난 도일은 그가 의대 시절에 만난 조지프 벨이라는 교수를 인생의 롤 모델로 설정했던 것인데, 여기서 롤 모델이란 단지 닮고 싶은 대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의 한국 사회를 휩쓰는 멘토 열풍으로 예를 들자면, 그것은 삶의 진리를 알고 있는 자, 그래서 의존해야만 하고 결국은 사랑하게 되는 절대적 지식의 소유자로서의 타자이다. 코난 도일은 자신의 은사에 대한 이 같은 전이적 사랑을 소설 속 주인공 흠즈와의 관계를 통해 재현해내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코난 도일의 소설 속 분신은 설록 흠즈가 아니라 왓슨-흠즈라는 한 쌍, 또는 둘로 분열된 구조이다. 소설 속 흠즈의 비서이자 친구이며 조력자인 왓슨은 코난 도일과 같은 의사였다. 코난 도일이 조지프 벨 교수에 감탄했던 것처럼 왓슨 역시 흠즈의 뛰어난 통찰력과 개성에 매번 감탄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코난 도일은 자신의 전이적 사랑의 구조를 소설 속 두 인물의 관계를 통해 재현해내고 있다. 그러나 소설이 유명해지고, 흠즈라는 인물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조지프 벨 교수

코난 도일과 홈즈의 (또는 조지프 벨의) 전이적 사랑은 변질의 운명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홈즈의 명철한 이성과 통찰력은 코난 도일의 지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작가의 지식의 산물인 소설의 주인공은 작가를 능가하는 지식을 소유할 수 없다. 만일 작가가 계속해서 자신의 주인공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만 남는다. 그것은 주인공이 작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뿐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주인공을 살해하여 유령으로 만드는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홈즈의 마약중독은 일종의 짧은 죽음

들이었다). 코난 도일 자신이 겪었던 조지프 벨 교수와의 전이적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지프 벨의 대역으로서의 홈즈가 더 이상 뻔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만일 홈즈가 죽어 입을 다물고 유령처럼 떠돌기 시작한다면, 코난 도일의 그에 대한 사랑은, 혹은 욕망은 유지될 수 있다. 한편, 바로 이것이 코난 도일을 사로잡았던 심령과학의 핵심이었다. 유령들, 사자(死者)들은 말이 없고, 그들의 존재는 명확한 언어의 세계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스터리 세계에 속한다. 19세기 서구 문명이 건설해낸 근대과학-이성주의적 신화는 삶의 모든 차원을 논리적 언어로 설명 가능한 차원에 한정 지으려 했다. 이러한 문명은 절대적 지식, 즉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것으로 존중되었지만, 바로 여기서 언급된 '모든 것'이라는 개념은 유한한 개념이다. 이것은 언어의 한계 내부에 존재하는 것에 관한 지식일 뿐이다. 이런 종류의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은 그것의 지식이 아무리 정확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체의 욕망을 지속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주체는 자신의 욕망을 지속시키기 위해 타자의 결여를 요구한다. 달리 말하면, 주체는 세상을 욕망하기 위해 세계의 지식이 불완전해질 것을 요구한다. 코난 도일이 (또는 그의 무의식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죽은 채로 살아 떠도는 설록 홈즈의 유령. 더 이상 귀납적 추리로 세계의 지식을 한정 짓지 않는, 불투명해져버린 죽은 홈즈의 그림자. 그리하여 근대적 세계-지식 자체의 균열로서 출현하는 유령의 존재.

코난 도일과 설록 홈즈의 기묘한 전이 관계가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은 한 사람의 세계관이 어떻게 욕망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형성되며 유지되는가에 관한 사실들이다. 세계관이란 주체가 자신 앞

의 세계를 설명하는 하나 또는 몇 가지의 내러티브(이야기 구조)를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이 의미 있는 것으로, 욕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근거한다. 코난 도일의 세계는 근대의 과학적 세계였지만, 그는 이곳에 신비주의의 빈자리를 유지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근대적 합리성의 명석함을 포기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가 설록 홈즈라는 인물을 끝내 이성 중심적 통찰력의 테두리 안에 머물도록 한계 지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분명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난 도일은 홈즈의 이성주의적 행보를 변경하지 못했다(홈즈는 마지막 순간까지 경험주의자로 남는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제스처는 홈즈를 소설 속에서 죽이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마저도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코난 도일에게 세계란 한편으로는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공간이어야만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불확실한 미스터리의 공간이어야 했다. 이 둘의 긴장 관계가 그의 세계를 유지시키는 욕망의 공식이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코난 도일만의 세계가 아니라 세계-일반이 구성되는 신경증적 모델이기도 하다.

추리소설로서의 삶

우리는 흔히, 인생을 한 편의 소설에 비유하곤 한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면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그리면서 한편의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전개시켜본다. 상상의 인생-소설은 우리가 언제나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가장 내밀한 이야기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인공의 자리가 곧 소설의 창작자인 작가의 자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보자. 우리는 삶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지만 그럼에도 이야기를 마음대로 써나갈 수 있는 작가의 위치를 차지할 수는 없다. 왜일까? 먼저, 이미 살아버린 삶에 대한 회고적 이야기를 살펴보자.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로 구성하고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된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든 사람이 후배들에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다(혹은 카우치에 누운 환자가 정신분석가에게 말하는 방식이다). 이미 살아버린 삶을 뒤바꿀 수는 없으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삶의 이야기 속 내용은 변할 수 없다. 여기서 화자인 우리는 소설의 주인공이자 쓰인 텍스트의 내레이터 역할 이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조금 더 폭넓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어쩌서 관점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인가요, 라고 살아온 인생의 실질적 내용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화자 마음대로 취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라고 말이다. 과거에는 그다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후에 그것을 삶의 이야기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 젊은 시절을 봉건적 사회 질서 속에 살면서 이혼을 경험했던 한 여성이 자신의 이혼 경력을 삶의 치명적 결점으로 간주해오다가 이후 사회 분위기가 진보-변화하면서 그러한 경험을 여성적 주체성의 실천과 관련된 투쟁의 기록으로 명명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가? 이때 삶의 소설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여성은 주인공인 동시에 작가(해석자)의 주체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사건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의존하는 것은 주체의 의지가 아니라, 주체를 둘러싼 사회구조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았다면, 그녀는 결코 자신의 이혼 경력을 자랑스러워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미래를 상상하는 소설의 형식 속에서도 말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고 그곳에서 벌어지게 될 삶의 모습을 그려보는 인생의 그림 속에서 우리는 주인공이다. 그러나 미래의 이야기가 쓰이는 방식이란 현재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사회적 언어와 조건들에 의해 한정될 것이다. 미래를 상상하는 우리 자신의 머리를 지배하는 것은 현재 세계의 조건들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래의 이야기를 그려낸다고보다는 현재 주어진 고정관념들을 변주하여 가짜 미래의 그림을 그려낼 뿐이다. ‘미래’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간을 의미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도래한 것들을 통해서만 미래의 소설을 쓴다는 의미에서, 미래의 시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래의 이야기를 상상하는 주체, 즉 작가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현재의 세계를 지배하는 지식의 고정관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렇게 타자에 의해 상상된 이야기 속에서 꼭두각시로서의 주인공 역할을 연기하는 것뿐이다: 마음속 가장 내밀한 공간에 존재하는 타자에 의해 연출된 환상-극의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

삶이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 쓰인 하나의 소설과 같다면, 그것의 형식은 추리소설에 가장 가깝다. 왜냐하면, 삶은 언제나 질문의 형식으로 다가오고, 질문에 노출된 주체는 그 답을 찾아 나서는 것으로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는 질문한다. 엄마는 무엇을 원하지? 조금 더 큰 아이는 묻는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성(性)은 무엇인가? 이후로도 질문은 끝나지 않는다. 결혼은? 가족은? 자식이란? 부모란? 죽음이란? 삶이란? 돈이란? 행복이란? 매번의 질문은 다양한 사건을 다루는 추리소설 연작처럼 우리의 삶을 의미를

찾아 나서는 모험으로 만들어준다. 우리는 끝없는 질문들의 연속에 사로잡히고, 의미의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리고 나서 이르게 되는 장소는 타자의 장소이다. 우리가 답을 찾는 장소, 혹은 또 다른 질문과 만나게 되는 장소, 그곳은 소설의 주인공인 우리를 위해 소설의 작가인 '타자'가 마련한 장소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발견되는 의미가 우리가 찾던 질문의 답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타자가 우리를 위해 준비한 미스터리 사건의 답안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추리 소설의 연작이 끝없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고안된 미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연극이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인공인 우리를 끝없는 욕망의 환상 극장 속에 묶어두기 위한 일종의 미모와 같은 장소. 바로 그곳이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추리소설적 공간이다. 설록 홈즈에게 그곳은 근대 이성의 타자가 답을 준비하는 공간이었고, 코난 도일에게는 홈즈 시리즈의 유한한 지식을 넘어서는 신비주의적 과학주의의 타자가 답을 준비하는 공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홈즈와 코난 도일 둘 모두 동일한 추리소설 속의 주인공에 불과했다. 그들은 모두 근대라는 연극 무대 위에서 추리극을 연기하는 두 가지 다른 캐릭터의 주인공일 뿐이었다.

만일 삶이 이렇게 모순된 추리소설의 형식에 불과하다면, 소외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 존재에 보편적인 조건이 된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닐뿐더러 심지어 우리가 찾는 삶의 진리조차 타자의 음모 속 미끼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삶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진리는 무엇인가, 등등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질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질문을 던지는 목소리의 정체이다. 누가 지금 진리에 관하여 묻고 있는가? 분명 그것은 무대 위 주인공인 나 자신의 음성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이 주어진 대사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목소리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가? 혹은, 나보코프의 그 유명한 질문, “누가 세바스천 나이트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가?” (Who is speaking of Sebastian Knight?)